

## 협회 소식



### 제5차 이사회 개최

지난 9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해 신훈 부회장, 윤오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윤수 이사(성원건설(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협회는 10월 31일~11월 1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부동산 세미나 2006'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으며, 지난 8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회의의 주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고분양가 논란은 업체 스스로 지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해 7000여 개에 달하는 주택등록사업자가 개발업자로 별도의 부동산개발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회 수석부회장인 이용구 대림산업(주) 부회장이 해외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공식이 된 수석부회장은 현재 임원들의 임기 만료일까지 선출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사회를 마치고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정책 추진현황' 과 협회 주택 자문위원회 위원인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 경기 전망' 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강팔문 본부장은 현 주택 시장에 대해 국지적으로 집값이 증가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전· 월세 난은 과거에도 있었던 계절적인 수요와 생애주기로 인한 신혼부부의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참여정부가 '강남 죽이기' 와 조세에 의존하는 주택정책을 펼쳐 중대형 평형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정책 실패이유로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원인과 다른 처방책을 내려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경기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2006년 하반기에는 국지적으로 불안이 지속된다고 봤으며, 2007년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2008년 이후에는 정권에 따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이방주 회장, '서울국제부동산박람회' 개막 행사 참석

이방주 회장은 지난 8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열린 '2006 서울국제부동산박람회(The R Show)'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부동산경제TV와 다음이 공동 주최하고 주택협회를 비롯한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정부와 지자체가 후원하고 미국 하얏트그룹과 뉴스타그룹, 란코 등 굴지의 해외 부동산 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50여 개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공식 행사와 전시 행사, 투자 세미나 등 특별 이벤트로 진행됐으며, 최근 해외 부동산 열기를 반영하듯 외국 부동산 업체 부스마다 국내 투자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9월 12일 서울 노원동 협회 회의실에서 원현수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서울 국제 부동산 세미나 2006 개최 계획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제, 공동주택 명칭 변경, 견본주택 건축기준 법제화 등), 정비사업 시공자의 선정 기준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조정 등을 보고했다.

한편 운영홍보위원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제 개선과 공동주택의 명칭 변경 금지, 견본주택 건축기준 법제화가 지양되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은 조속히 개정해 토지수용 요건의 적용 유예기간을 삭제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노력해줄 것과 3자녀 무주택 가구의 특별 공급이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입주자 모집에 많은 기일이 소요돼 민간사업 주체도 공공기관과 같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회원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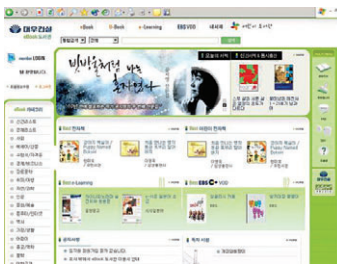
해외건설협회 회장에 대림산업 이용구 부회장



지난 8월 30일 해외건설협회 임시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대림산업(주)의 대표이사 이용구 부회장이 선출됐다. 임시총회에서는 회원사에 대한 지원 기능의 강화 및 민간 자율성 제고를 위해 비회원 중에서 선출해오던 회장(상근)을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비상근으로 변경하는 한편, 상근 부회장직도 신설했다. 해외건설협회 창립 이래 업계에서 최초로 선출된 이용구 신임 회장은 1971년 대림산업

에 몸담은 이래, 우리나라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특히 해외 건설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활발한 대외 활동, 그리고 해박한 전문 지식이 협회장으로 추대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 회장은 2006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전자책 도서관 오픈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세흠) 푸르지오는 9월, 신규 분양하는 서울 마곡푸르지오 단지부터 입주주민을 위한 푸르지오 전자책 도서관을 무료로 운영한다.

‘푸르지오 전자책 도서관 (ebook.dwconst.co.kr)’은 최신 베스트셀러는 물론 재테크 및

경제·경영 관련 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책 3만여 권으로 구축돼 있다. 특히, 유아와 아동을 위한 ‘어린이 전용 전자도서관’을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 최초로 전자책 도서관에 EBS e-learning 방송 콘텐츠까지 구비하는 등 아파트 입주주민의 교육환경까지 배려했다. 또한 입주주민 외에 입주예정자도 분양계약과 동시에 부여 받은 ID와 ‘사전서비스제도’를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PC 뿐만 아니라 PDA, 전자사전, 휴대폰 등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열람할 수 있어 본격적인 아파트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하게 됐다.

포스코건설, 베트남 신도시 개발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수양)은 지난 18일 하노이 멜리아 하노이 호텔(Melia Hanoi Hotel)에서 베트남 최초의 자립형 신도시 개발을 위해 현지 국영건설회사인 비나코넥스사와 업무 협약을 위한 계약식을 가졌다.

베트남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하노이시 경계의 안카잉(An Khanh) 지역에 80만 평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약 14억 달러가 투자되며, 단독주택 1351가구, 아파트 6335가구와 75층 높이의 베트남 최고층 빌딩과 상업·업무·공공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화성산업, ‘화성자원봉사단’ 사랑 나눔 실천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 ‘화성자원봉사단’ 30여 명은 8월 20일 노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도배를 비롯해 장판·싱크대·조명·가스레인지 등을 교체하고 전기공사를

새로 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은 물론 내부 청소까지 완료함으로써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SK건설, SK케미칼 국내 최고 수준 층간소음 차단 성능 구조 공동개발



SK건설(대표이사 부회장 손관호)은 SK케미칼(대표이사 부회장 김창근)과 공동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구조를 개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국내 차단 성능 구조 최고 등급인 ‘중량충격음 1등급’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인 중량충격음, 의자 등을 끄는 소리인

경량충격음으로 나뉜다.

기존 아파트에 사용하는 바닥충격음 저감용 제품들은 대부분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3~4등급 수준으로 최소 법규 기준(4등급, 50dB)만 충족하고 있다. SK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중량충격음 1등급’ 제품은 중량충격음이 40dB(냉장고 등을 포함한 가정 평균 생활 소음 수준) 이하로 윗집에서 나는 소음을 아랫집에서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바닥충격음 차단재는 4겹의 흡음 소재, 특수 슬라브 등 SK케미칼의 첨단 소재와 SK건설의 신속한 시공 기법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누적돼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 층간소음 없는 우수한 성능의 주택을 대거 공급해 주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